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복음으로 오는 허박국-

허박국 3:17-18, 빌립보서 4:4-7

정윤돈 목사님

서론 : 허박국의 배경

오늘도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모든 교회 행정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3천 제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란다. 오늘은 허박국서를 중심으로 주일 강단메시지를 나누려고 한다.

(1) '허박국'은 본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포옹하다'라는 뜻이다. 능동의 의미도, 수동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 이름 안에 허박국서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씨름하다'라는 뜻도 된다. 허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질문하며 몸부림치다가 응답을 받고 최고의 신앙고백을 남겼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왜 세계복음화해야 하는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허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씨름하듯이 나아갔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품은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어찌되었든 전부 분열되어 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분열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자. 허박국의 심정이 이러했다.

(2) 허박국 때에 유다 나라는 여호아킴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강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강포한 시대였다. '강포'라는 단어가 허박국서에 만 6번이 나온다. 왜 강포를 행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애굽, 앗수르 같은 강대국이 있는데, 이것이 조공을 받는 것이다. 이 강대국들이 왕이나 고관대작을 세우고 그들을 꼭두각시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힘들게 세금을 거두어야 강대국에 상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백성들에게 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세금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한 술 더 떠서 착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강대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스스로 치부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유대 땅에 있었다. 그러니 허박국은, '하나님, 저 나쁜 지도자, 강포를 행하는 위정자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하고 기도한 것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앗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상태였다. 희망이 없는 국제정세였다. 우리의 형편도 똑같다.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도 봐야 하는데, 중국이 힘 있는 나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허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허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항의를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다.

1. 질문에 대한 묵상

(1) 첫 번째로, 허박국이 가졌던 의문과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①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이었다. 허박국 1:2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는데, 40일 기도를 두 번이나 했는데, 금식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왜 나는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하는가. 초등학교 하나가 기도수첩을 하다가 편지를 썼다. "이제 기도수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수첩을 열심히 했는데 태권도 진급심사에서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② 왜 악인은 흥하고, 선량한 백성들은 착취와 강포를 당하는 등,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허박국 1:3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꺾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중편에서, 촛불집회에서, 태극기집회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가. 옳은 말도, 틀린 말도 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는지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허박국 1:4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③ 세 번째 질문은, '어찌서 하필이면 이 약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삼키게 하시나이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저 왕들, 위정자들을 치기 위해서 강한 나라 바벨론을 부를 것이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박국이 깜짝 놀랐다. "아니, 그냥 저 위정자만 치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1장 중반까지의 내용이 이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였다.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게 되니까, 그냥 두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을 돕는 일이고 핵 개발을 돕는 일이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만약 우리 아버지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일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말

할 수 없다. 이 세상은 전쟁터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않으면, 영적 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업도 집도 다 폭탄에 맞아 날아가 버린다. 영적인 것이 그렇다. 잘못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문제가 온다.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 천사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허박국 1:3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세 번째로 질문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악인? 누가 악인인데? 너는 과연 선하냐?"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틀린 것이다. 여러분, 북한이 악한가? 그러면 북한 사람이 다 악한가? 좌파가 악한가, 우파가 악한가? 좌파도 우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 어떤 해병대 어르신을 만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뺨쟁이들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우리 국민 아닌가? 왜 다 죽이고 다 없애야 하는가? 공산당들이 했던 것이 '반동 세력은 다 죽여야 한다'는 것 아니었는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역할은 다 살리는 것이다. 진리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어야 한다.

(2)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과 의문들이 있다.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물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설명도 필요 없다. 그런데 램넛들, 현장을 보니까 아닌 것이다. 많은 젊은 아빠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논리, 이성, 사상 때문에 다 죽어있는 것이다. 램넛들은 현장에서 다 진화론을 배운다. 엘리트의 99%가 진화론 속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데 왜 진화론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현장의 램넛들은 심각하다. 성경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다. 우리가 바꿔 주어야 한다. 창조과학회의 김명연 교수의 간증을 들어 보았다. 이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생명공학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다. 모든 세포에는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게놈(Genome)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지 않나? 인간의 DNA 한 줄에 32억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데에 슈퍼컴퓨터로 10년이 걸려도 다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네 글자가 떠올랐다고 한다. "계시군요." 하나님이 안 계시 줄 알았는데 계시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고 한다. 이게 진정한 영적이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몇 달 동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고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기 바라고,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 바란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의문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적으로 개인과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천국에 가게 해 줄 수 없다. 공자가 훌륭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②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답해 드렸다. "일단 그분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나마 교회에 다니니까 그 정도인 것입니다. 둘째, 목사님이 그러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셋째, 우리는 목사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가 잘 해야 되겠지만, 목사나 교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하실 겁니다. 목사가 이상하다지만, 나는 안 그런데 하고 말이지요."

③ 교회에서 왜 그렇게 현금 강조를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 교회가 왜 어려운가? 세상으로 따지면 벤처이기 때문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어려운 것이 많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분이 바로 이해하더라. 그분 자신이 벤처기업을 하는 분이어서. (웃음) 교회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교 팀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다.

④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다. 나는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마다 실망했었다. 너무 대중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신학교에 가기 전에 신학을 미리 다 배웠던 것 같다. 나는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 3/4이 신학 서적이였다. 그런 책을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우주의 신비>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자연 만물을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자연 속에서 삼위일체를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도 삼위일체다. 과거, 현재, 미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 공간도 삼위일체다. 가로, 세로, 높이 한 군데만 0이 되어도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 만물 속에 다 나타나 있는데, 삼위일체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그 책을 쪽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이론으로 다 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객관적인 많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상자 안에 코끼리가 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 상자 안을 구멍 몇 개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기둥 같은 다리, 길고 큰 꼬 정도밖에 안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천국에 가야 완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100% 증명은 못 한다. 믿어야 한다.

- ⑤ 대홍수, 노아의 방주, 성경 속의 많은 기적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⑥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 ⑦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하느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 로마서 12:1은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려야 한다.

(3)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써 보시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찾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의문만 가진다. 어떤 군인 출신의 작가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되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점을 증명하겠다’하고 모든 자료를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3년 만에 깨달은 것이다. 무릎을 꿇고 고백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이 쓴 책이 그 유명한 <벤허>다. 여러분, 의문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 보라. 나는 중고등학교 때 의문을 기록한 노트가 두 권이나 있었다. 지금은 적을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알고 믿으니까. 그때는 의문이 많았다. 그것을 적고 계속 기도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았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시대는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지식은 바벨탑과 같은 타락한 지식이다. 네페림과 같은 더러운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답을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네페림의 흐름, 바벨탑의 흐름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약간만 공부해도 답을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해답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많은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 꼭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가?

- ① 하박국이 했지 않나?
- ② 베드로전서 3:15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예수님이 변증의 달인이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잡혀온 여자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간단히 무너뜨리셨다. 유대인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는가? 만약 간음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 법에 어긋나게 되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데,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은 간단히 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대국노가 되고, 내지 않으면 로마에게 반역하게 하는 선동가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짧은 말로 명쾌하게 답을 주셨다. 니고데모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접해야 한다. 무엇을 영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엘리트,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신앙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답을 주셨다. 여러분도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란다. 다락방은 답을 주는 곳이다. 현장에서 삶에, 갈등에, 가정에, 문제에,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다. 이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나 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갈급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해결이 안 되니까 예배하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답을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곧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이다.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었다. 이화여대 학생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3도 화상을 입고 몇 십 번의 수술을 받았다. 올해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어서 올해 한동대 교수가 되었다. 너무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 바란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 것도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란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가다가 암초에 걸렸다. 배가 어디도 갈 수 없게 되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굶어죽었다. 그 선교사님의 노트가 발견되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굶주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 굶어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쓴 내용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 (2)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① 하박국 2:3을 보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옹허리

라.” 바로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더딜지라도 주신다고 했다. 결국은 응답을 주셨던 것이다.

② ‘어찌하여 강포를 행하는 자를 그냥 두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 것이 문제가 돼. 그러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하박국 3:1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③ ‘저 악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하박국 2:4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산다. 믿음이 없으면 네 영혼도 못 살리고 네 나라도 못 살린다.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산다’ 하시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할 수 있다.

1)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박국 너는 의인인데, 믿음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담과 혼란한 상태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은, 어둠과 혼란에 빠져서 죽은 상태가 된다.

2)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구원받은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오직 의인,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정의롭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3)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열두 가지 재앙으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리라고 미션을 주시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④ 네 번째 말씀이 하박국 2:14이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사역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결론 : 믿음의 절대 목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절대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이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목표를 주신 것이다.

(1) 하박국 3:17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1:1,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구체적인 고백이 하박국 3:17-18의 구체적인 고백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2)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1:3,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내 안에 항상 천국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가.

(3)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도와 간구 속에서 모든 문제, 의문에 대한 응답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성정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충만이다. 성령충만 속에서 살아간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성령충만하니까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 맞음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빌립보서 4:6-7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마음과 생각의 문제다. 내 판단,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성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진도운동, 선교운동과 현장을 정복하는 제2 RUTC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성적인 의심과 질문을 뛰어넘고, 세상을 진동시킬 만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와 후대, 램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의심이 많고, 불신앙이 가득하며,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흐름과 복음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잃어버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셨사오니, 정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을 모든 성도와 후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